

육군 31사단 권도희 중사, 헌혈 100회 달성

대한적십자사 '헌혈 명예장' 수상...10년간 생명 나눔 4월 헌혈증 76장 기부...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도

육군 제31보병사단은 고경명대대 급양관리부사관 권도희 중사가 최근 헌혈 100회를 달성하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명예장'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권 중사가 처음 헌혈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컸지만, 백혈병을 앓고 있던 한 학우를

만나면서 헌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자신의 헌혈에 진심으로 감사해 하던 친구를 보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후 꾸준히 헌혈을 이어왔다.

권 중사는 해의 파병 기간을 제외하고 약 10년 동안 바쁜 군 생활 속에서도 틈

틈이 헌혈의 집을 찾아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헌혈 100회를 기념해 그동안 모아온 헌혈증 76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의미를 더했다.

헌혈증 기부 역시 확장 시절 만났던 친구를 떠올리며 도움이 필요한 환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 나눔을 향한 권 중사의 노력은 헌혈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지난 2019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실제 기증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권 중사는 "헌혈을 생활 속 습관처럼 꾸준히 이어오다 보니 어느덧 100회에 이르게 됐다"며 "나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헌혈자의 날(14일)을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 나눔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헌혈과 기부를 통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육군 제31보병사단 고경명대대 급양관리부사관 권도희 중사가 최근 헌혈 100회를 달성하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명예장'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육군 제31보병사단



광주 북구 중앙동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지역 내 경로당 5곳의 어르신 80여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중앙동새마을협·부녀회, 점심 나눔 봉사 지역 어르신 80명 초청...정서적 교감 나누기도

광주 북구 중앙동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광주중앙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 15명은 최근 지역 내 경로당 5곳의 어르신 80여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식사 준비 과정에서 중앙동 소재 식당과 정과마트를 이용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의미도 더해졌다.

이날 회원들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하며 말벗이 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건강 상태와 생활 불편 사항을 살피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강호 중앙동새마을협의회장은 "지역 자생단체와 함께 어르신 공경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양제철소, '특별 봉사 주간'에 9300여명 참가 지역 곳곳서 300건 이상 다양한 봉사활동 펼쳐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2026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를 맞아 제철소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 등 9300여명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포스코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운영하는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는 포스코그룹 고유의 특별 봉사 주간으로 광양제철소는 광양지역에서 보건·건강(AI활동 헬스케어, 응급처치 교육), 디지털(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환경(미세먼지 저감, 수질 개선)을 테마로 총 300건 이상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면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시켰다.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 동안 펼쳐진 주요 봉사활동은 옥곡지역 아동센터 시설물 보수, 가이산 일대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환경개선, 노후전동 교체, 노후담장 도색, 일자리 창출형 도시락 배달사업 등



달,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무료급식소 도시락 용기 및 음식비용 전달 등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철소 관계자는 "작은 봉사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며 "올해 글로벌 볼런티어 워크는 특히 지역사회와의 상생 실천에 모든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광양제철소와 협력사 임직원들의 따뜻한 땀방울이 광양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앞으로도 현업부서 봉사단과 재능봉사단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상생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주-대구 의용소방대, 11년째 '달빛동맹' 교류

옛 전남도청 방문 등 체험 재난대응 협력방안 모색

'달빛동맹'으로 매어진 광주와 대구 의용소방대가 11년째 우정과 화합을 다져, 눈길을 끌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1~12일 이틀동안 광주 일원에서 광주의용소방대연합회와 대구의용소방대연합회가 함께하는 '제11회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교류행사는 광주와 대구 의용소방대연합회 간 상호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단체는 해마다 광주와 대구를 번갈아 오가며 재난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들의 인연은 지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 및 관람을 계기로 시작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영·호남 의용소방대 교류행사'가 광주 일원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광주소방대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광주와 대구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날인 지난 11일 광주소방학교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의용소

방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이틀동안 12일에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찾아 영호남 대원 간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낸 뒤 교류행사의 일정을 마쳤다.

강영선 광주소방대연합회장은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광주와 대구 의용소방대는 재난 발생 때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영호남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꿈나무사회복지관, 문화피크닉 공연Day '성황'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최근 복지관 강당에서 꿈나무장난감도서관·실내놀이터 이용자 가족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6 꿈나무놀이터 문화피크닉 공연Day'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 북구 지원으로 운영되는 꿈나무놀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 이용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연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꿈나무놀이터 사업은 꿈나무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비롯해 가족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꿈꾸는 놀이터 홍보단 운영, 어린이집 연계 놀이프로그램 등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지역 음악단체인 '슬러양상'의 재능기부 무대로 시작됐다. 피아노와

플루트, 바이올린,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4중주 연주단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테디 마술사'의 마술·풍선 공연이 진행됐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연에서는 다양한 마술과 풍선아트가 펼쳐졌으며, 어린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함께 무대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명관 관장은 "이번 문화피크닉 공연 Day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놀이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꿈나무사회복지관은 북구 지원을 받아 꿈나무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최근 복지관 강당에서 꿈나무장난감도서관·실내놀이터 이용자 가족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6 꿈나무놀이터 문화피크닉 공연Day'를 개최했다.



여주시 SNS서포터즈는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6월 서포터즈데이 공동취재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여주시 SNS 서포터즈, 섬박람회 붐업 조성 주행사장 현장 취재·댄스챌린지 콘텐츠 제작

여주시 SNS서포터즈는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6월 서포터즈데이 공동취재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공동취재 활동은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소문의 섬박람회' 챌린지를 통해 SNS 홍보와 함께 섬박람회에 대한 기대감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포터즈는 섬박람회 주행사장의 랜드마크인 주제섬 앞에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소문의 낙원' 챌린지를 촬영하고 주행사장 조성 현장과 준비상황을 취재해 홍보했다.

강상구 서포터즈 회장은 "섬박람회 주행사장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80여일 앞

으로 다가온 행사가 더욱 실감나고 기대된다"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통해 섬박람회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6월 공동취재 활동에 참여한 주신 SNS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SNS 채널과 여수이야기 시민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통해 홍보사절단 역할을 든든히 이어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SNS서포터즈는 매일 미션을 통해 여수 365섬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섬 기획취재 활동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에 기여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